

월간

공군



제545호

11

Contents

Republic of Korea Air Force Magazine

04 취임사

제41대 공군참모총장 취임사

06 기획

‘소방구조’ 모아보기
“시켜줘, 공군 정예 소방구조중대!”



20 특집 III

Seoul ADEX 2023
제9기 국민조종사/제2기 명예조종사 비행체험 및 임명식

22 그래픽으로 보는 공군

HH-47(CHINOOK)



12 특집 I

안녕! 공군 문화예술
Ⅶ. 창조적 군대-생활예술을 통한 일상에서의 역량 키우기

15 공군 단신

공군홍보대사 알리
항공작전 임무환경체험

16 특집 II

이스라엘 재외국민 귀국 지원

24 Aero Detail

미국의 주요 폭격기



표 지 (앞) 단풍놀이 가는 하늘이프렌즈와 가을풍경을 그리는 장면(병장 황원진)

발 행 일 자 2023년 11월 1일(통권 제545호)

발 행 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이영수

편 집 인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대령 윤영삼

편 집 감 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장 중령 김승진

기 획 · 편 집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대위 이다현

전 자 도 서 관 www.afzine.co.kr

디자인·인쇄 국방출판지원단(F23100342)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 및 인터뷰는 개인의 견해를 알려드립니다.

30	박물관에서 본 세계 공군 공대공미사일 최초사용, 대만공군	50	영화로운 나날 「1947 보스톤」 그들이 달려야만 했던 이유
34	내 옆의 공군인 40년 검도 인생, 공군사관학교 박상섭 검도교수	52	시와 비행하다 하늘과 신비
		54	생각하는 그림 상무정신으로 지켜낸 한민족의 역사
		56	공군인의 편지 작지만 큰 나의 전우에게 (공군지편집디자인담당 병장 황원진)
38	지금 이 순간! 공군 소식 & 참모총장 동정 & 부대 소식	57	책 읽는 공군 그런데도 살아야 할 이유 (교육사령부 보급대대 병장 박세진)
46	슬기로운 장병생활 오늘을 살자	58	토닥토닥 가을에 띄우는 쇼팽
48	한 달, 한 권 화장실엔 시집을 몇 권 가져다 놓자	59	마음의 소리 독자 참여 코너



제41대 공군참모총장 취임사



바쁘신 일정에도 식전을 주관해주신 존경하는 국방부 장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영공방위를 위해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해외에서 헌신하고 있는 공군 장병들과 군무원, 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대한민국 평화를 위해 함께하고 있는 미군/유엔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빛내주신 역대 공군참모총장님들과 내외귀빈, 공군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년 6개월간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강의 정예 공군’ 건설을 통해 눈부신 업적을 남기고 영예롭게 이임하시는 정상화 총장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공군 장병과 군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명예 의하여 제41대 공군참모총장의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님의 통수지침과 장관님의 지휘 의도를 받들어, 조국 영공방위 임무를 완수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강한 선진공군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하는 등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또한, 하마스-이스라엘 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국제정세도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우리 공군은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압도적 응징태세를 유지하여 당장 싸워도 이길 수 있는 Fight Tonight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훈련을 더욱 내실 있게 실시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고 **‘힘에 의한 평화’**를 굳건히 받침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전장을 주도할 강력한 항공우주력을 건설**해야 하겠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전장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현재의 위협에 즉각 대응하면서도 미래의 전영역 통합작전을 주도할 강력한 항공우주력이 필요합니다.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항공우주는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영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우주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공군이 **‘국방혁신 4.0’**과 연계하여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증강,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발전 및 우주 작전역량 강화 등 미래 항공우주력 건설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군 기강이 확립된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해 나갑시다.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과 다양성, 양성평등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의 병영문화도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구성원 간 원활한 소통은 물론 관련 교육도 지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초급간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급여 현실화와 복지 강화, 인사시스템 개선 등 실질적인 복무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군 고유의 가치인 군 기강과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장병들의 올바른 국가관과 대적관, 군인정신을 함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성, 합동성과 책임감을 겸비한 우수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국방 분야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시스템이 도입되고, 무기체계는 더욱 복잡하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을 운용하고 정비·관리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며 전투력의 핵심 역시 ‘사람’입니다. 특히, 높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획득하고 양성하는 것은 우리 군의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곧 미래**’라는 생각으로 미래 대한민국의 하늘과 우주를 책임질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믿음직스러운 공군 장병과 군무원 여러분!

앞서 강조한 사항들은 총장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완성할 수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군 전 장병과 군무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역량을 결집할 때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의 한 구절입니다.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국민과 함께하는 강한 선진공군 건설**’이라는 영광스러운 여정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식전을 주관해주신 존경하는 국방부 장관님과 취임을 축하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공군에 아낌없는 격려와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40년 동안 오직 대한민국과 공군의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고 이임하시는 정상화 총장님과 오랜 기간 옆에서 묵묵히 내조해주신 오태미 여사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총장님과 가족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공군참모총장 대장 이 영 수





'소방구조' 모아보기

"시켜줘, 공군 정예 소방구조중대!"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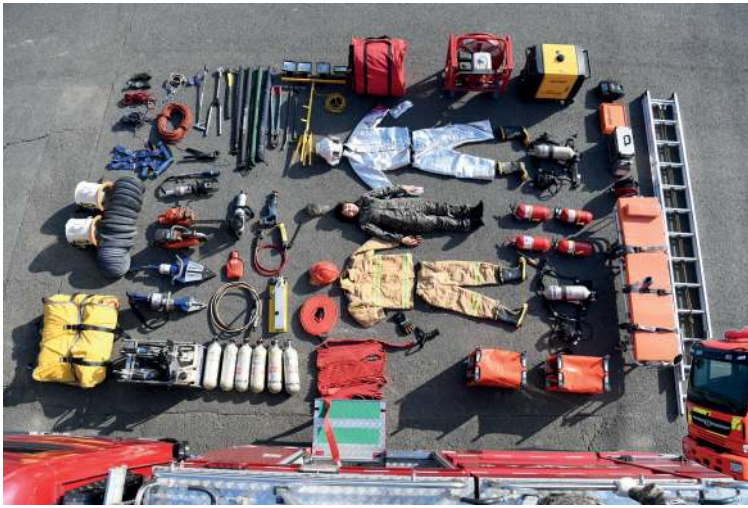


공군 비행단은 임무 특성상 첨단 항공기와 작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부대·시설이 모여 기지(Base)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지 내에는 탄약고나 유류저장시설 등 대형화재로 변질 수 있어 초기진압이 중요한 시설들도 함께 있습니다. 또한, 공군의 주 임무인 항공작전 중에는 다양한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황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대기하는, 없어서는 안 될 비행작전 지원 요원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병대대 소방구조중대입니다. 이들은 공군에 특화된 소방차량으로 특화된 훈련·평가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소방요원 기량 증가에 힘쓰고 있습니다.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월간 『공군』 취재팀은 '2023년 공군 피해복구 전술평가대회(소방분야)'의 현장을 찾아 대회가 진행된 소방종합훈련장을 둘러보고, 각 부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취재했습니다.

공군 소방차량 4종

공군 소방차량은 인명구조 소방차, 경화학 소방차, 항공기구조 소방차, 다목적 특수 소방차(항공기구조 소방차) 총 4종이 있습니다. ‘화재진압’이 목적인 것은 보통의 소방차와 같습니다. 하지만, 유류용 소화 약제와 대용량의 소방차를 운용하는 것이 항공기구조 소방차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항공기구조 소방차에는 원격 시동, 원격 방수포 제어 기능이 있어서 운전석에서 차량을 이동하면서 바로 화재진압을 할 수 있습니다.

전시에 항공추진보급기지(ATSP·Air Terminal Supply Point)¹⁾ 등에 수송기(C-130·허큘리스)를 실어 운송할 수 있는 특수 소방차입니다. 접근/이탈각을 확보해 오프로드 운영에 최적화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경화학 소방차 안에 들어있는 방화복, 방열복 등과 소방 장비·장구들



인명구조 소방차
(인명구조용)

차량 크기(LxWxH):
8.5mx2.5mx3.7m



경화학 소방차
(건물 및 유류 화재 진압용)

차량 크기(LxWxH): 8.11mx2.48mx3.3m
물/소화약제 탱크 용량: 4,000 ℓ / 400 ℓ
최대적재량: 4,400kg



항공기구조 소방차
(항공기 화재 발생 시 소화 및 인명구조용)

차량 크기(LxWxH): 10.18mx2.5mx3.55m
물/소화약제 탱크 용량: 6,000 ℓ / 1,000 ℓ
최대적재량: 6,800kg



다목적 특수 소방차
(항공기 화재 발생 시 소화 및 다목적용)

차량 크기(LxWxH): 9.49mx2.5mx3.1m
물/소화약제 탱크 용량: 5,600 ℓ / 700 ℓ
최대적재량: 6,300kg

1) 항공추진보급기지(ATSP·Air Terminal Supply Point): 수복 지역의 열악한 지상 병참선을 극복하고, 신속하고 유연한 재보급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의 수복 비행장이나 비상 활주로에 설치·운용되는 항공수송지원 기지

2023년
공군 피해복구 전술평가
대회(소방분야)
현장에서 보는
‘공군 소방’

소방훈련장은 외부 소방학교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항공기 화재 및 소방 구조/유류탱크 화재진압/건물화재 및 인명구조/소방시설 실습/농연 훈련 등의 실습장이 유형별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XR²⁾ 체계도 도입 중입니다.

현재 개발된 XR 콘텐츠는 ‘항공기소방구조’와 ‘Hook Engage(고리체결)’ 두 가지로, ‘항공기소방구조’는 교육생이 ‘캐노피개방, 엔진 정지, 안전핀장착, 조종사 장구 해체’ 절차를 반복해 숙달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Hook Engage’는 4명이 함께 할 수 있으며, 항공기 포착 후 초과저지장비를 분리하는 절차가 담긴 콘텐츠입니다. 부상의 위험 없이 한번에 보다 많은 교육생들이 절차 숙달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콘텐츠를 고도화하고, 항공기 기종을 추가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상호 연동해 훈련하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건물화재 및 인명구조 훈련장’에서 화재진압 훈련 중인 공군 장병들



‘항공기소방구조’ XR 콘텐츠에서 조종사 장구 해체를 하는 교육사 장병



‘항공기 화재 및 소방구조 훈련장’에서 20전비 소방구조중대 장병들이 항공기 엔진 화재진압을 하는 모습(왼쪽)과 항공기 동체를 절단하는 모습(오른쪽)



2) XR(eXtended Reality): 확장현실,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과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을 아우르는 혼합현실(MR, Mixed Reality) 기술을 망라하는 용어

비행단에서 소방요원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훈련

각 부대 소방구조중대는 요원들의 기량 유지를 위해 건물화재/항공기 소방구조 훈련(월 1회), 유류 화재진압 훈련(분기 1회 이상)을 정기적으로 시행합니다. 특히, 훈련의 1/3은 반드시 야간훈련으로 진행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훈련합니다. 소방, 구조 외에 항공기 초과저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초과저지장비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비상상황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지가 곤란한 이·착륙 항공기가 활주로 한계 범위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포착하는 장비입니다.



3훈비 소방구조중대 장병들이 활주로 폐쇄 처리절차 훈련에서 조종사를 구조하고 있다.



18전비 소방구조중대 장병들이 이동형 초과저지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소방요원들의 훈련 외 활동

그 외에도 산불이나 대형화재진압 지원, 민·관·군 합동 훈련(연 2회), 부대 행사 시 안전 체험 지원, 부대 어린이집/인근 초등학교 화재 예방 교육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는 ‘2023 대구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참가해 공군 소방차량을 소개하고, 소방구조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공군 소방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확대·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강릉 산불 화재진압을 지원 중인 18전비 소방구조중대 장병들



‘2023 대구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서 관람객에게 다목적 특수소방차를 소개하는 17전비 소방구조중대 장병

한미연합 소방요원들의 긴밀한 작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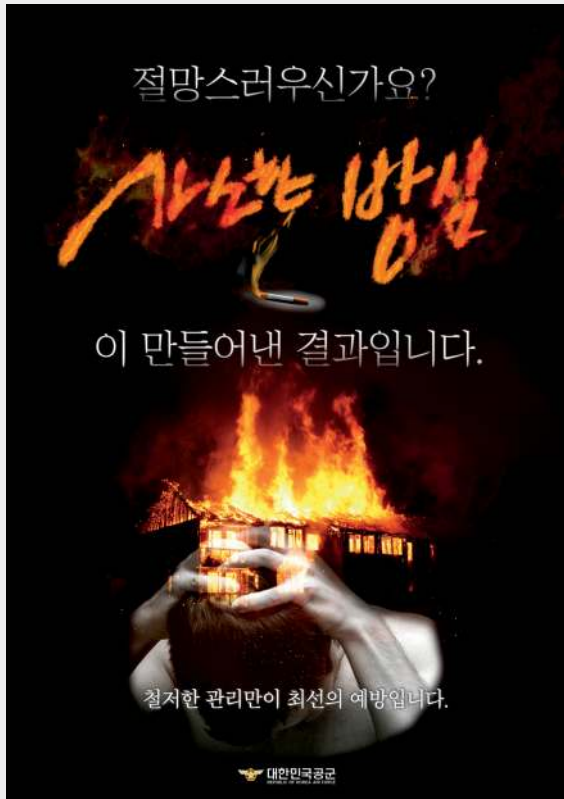
美 공군이 전·평시 주둔해 작전을 수행하는 MOB(Main Operation Base, 주 작전기지)에는 美 공군 소방대가 별도로 편성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화재 발생 또는 활주로 내 항공기 화재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서로의 소방력을 지원해 화재진압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시에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상호교류 및 소방작전 지원절차에 숙달해야 합니다. 전시에는 美 공군 병력이 전개해 작전을 함께 수행하는 COB(Combined Operation Base, 공동작전기지)에도 美 공군 측에 소방대가 편성되기 때문에 해당 부대들

도 연 1회 한미연합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미공군은 한반도 내에서 같은 기지를 공유해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서로의 장비 및 물자, 소방 전술 등을 공유하며, 유사시 연합작전을 펼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韓美 연합훈련' 후 촬영한 한미 소방구조 장병들의 단체 사진

‘2023 화생방·소방 공모전’ 소방 분야 우수작



‘2023 화생방·소방 공모전’에서 당선된 소방 분야 우수작(왼쪽부터 포스터 최우수, 포스터 우수, 인포그래픽 우수)



“아는 만큼 보인다.”란 말이 있다.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보기 위해 운집한 은발의 노년층이나 브로드웨이 뮤지컬 극장에서 열광하는 중장년층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부러움의 한숨이 나온다. 그들은 예술을 즐길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한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축적돼 온 그들의 ‘역량’이기 때문에 부럽다는 것이다.

‘예술의 멋과 가치를 아는 그들을 키워준 그 나라의 정책은 과연 어떤 것이기에?’ 하는 질문도 저절로 떠오른다.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술과 함께 하게 하는 선진국들의 정책은 그 나라의 국민이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보는 예술’, 곧 향유자로서 멋진 예술을 보고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예술 행위를 해볼 수 있는 ‘하는 예술’의 환경이 전방위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1990년대 초반부터 ‘생활문화/생활예술’이란 이름의 관련 정책들이 만들어졌고, 다양한 방식의 지원 사업들도 생겨났다. 하지만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쉬어야 하는 청년 세대에게 공공의 생활문화/생활예술 지원 정책은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런 점에서 장병들에게 군 복무기간은 청년 세대로서 생활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사례: '창조적 군대' 프로그램

군 복무 시기 동안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예술 활동이 크게 기여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논문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찌감치 국립예술기금(NEA,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에서 ‘창조적 군대: 국립예술기금 치유예술네트워크(Creative Forces: NEA Military Healing Arts Network)’를 만들어서 현역 및 퇴역 군인의 예술 치유를 도모하고 있다. ‘창조적 군대’에서는 첫째, 예술을 통해 창의적 표현을 해봄으로써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둘째,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며, 셋째, 스트레스나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힘을 키울 수 있고, 마지막으로 민간인으로 복귀하는 데에 필요한 다양한 심리적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Connecting communities and military

The Creative Forces Community Engagement Grant is a program of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 in partnership with Mid-America Arts Alliance (M-AAA). This grant program aims to improve the health,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for military service members and veterans exposed to trauma as well as their families and caregivers through experiences of art or art making.

Each year, M-AAA will award approximately thirty-five matching grants ranging from \$10,000 to \$50,000 for arts-based community engagement projects that engage targeted military-connected communities. These Creative Forces Community Engagement Grants are intended to support non-clinical arts engagement programs taking place in healthcare, community, or virtual settings. The grants will be awarded in two tiers, emerging and advanced, which reflect the capacity of the project at the time of the application.

In 2022, the inaugural round of grants supported projects at 26 organizations totaling over \$750,000 in awards. Read more about the

MAAA(Mid-America Arts Alliance, 중미예술동맹) 홈페이지 캡처 화면

‘창조적 군대’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 중 하나는 이 프로그램이 현역 군인만이 아니라 퇴역 군인, 그리고 그들 가족의 예술교육 및 치유까지 지원한다는 것이다. 가족 공동체를 매우 중시하는 미국 사회의 특징일 수도 있겠지만 군 가족 전체를 지원하는 효과가 군인에게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점, 또한, 현역이 아니라고 해도 군 복무 중에 생긴 트라우마를 예술 활동을 통해 치유하겠다는 지원 정책은 한국에서도 고민해 볼 점이다.

작년 공군부대 강연의 기억

필자는 2022년 2회에 걸쳐 ‘예술과 연애’라는 이름으로 공군 부대에서 강연했다. 짐작하겠지만 연애를 예술과 연계시킨 것은 젊은 장병들의 예술에 관한 관심을 끌어올려 보고자 하는 나름의 알팍한 묘수였다. 장병들이 그것 때문에만 강연에 집중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장병들이 기존의 외부 특강들보다 더 경청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장병들이 예술에 무심하지는 않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다.

반면 강연장에서 진행한 작은 설문 조사에서 놀란 부분도 있었다. 강연에 참석한 80명 넘는 장병 중 연극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고 손을 든 사람은 딱 2명. 그것도 대학로에서는 이른바 ‘상업 연극’이라고 치부하는 연극을 봤다고 말하는 두 사람을 보면서 나는 잠시 망연자실(茫然自失)했다. 전업으로 연기를 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희곡을 읽어보고, 무대에 올라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극이란 장르 자체에 관심을 두게 된다. 어릴 때 피아노를 배워본 사람은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콘서트를 보러 가고 싶어지게 되고, 그림 학원에 다녀본 사람은 전시 보러 다니는 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마련이다. 장병들이 이토록 공연예술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공연예술에 어떤 식으로든 노출될 기회가 없었다는 뜻이다.

문화예술 활동의 첫 걸음, 동아리

장병 개인이 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면 여건상 제약 요소가 많을 수 있다. 그렇지만 비슷한 연령대의, 비슷한 욕구를 가진 청년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부대 내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그 첫걸음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일반 시민들의 예술 활동 역시 동호회(동아리)라는 이름으로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 무엇을 어떻게 할지 기획하는 것부터 함께 한다. 공군 내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는 동아리들이 많다. 사진 동아리 제3훈련비행단의 ‘사진두드림’과 제16전투비행단의 ‘찰각’은 부대가 있는 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 사진 촬영 봉사 활동을 한다. 제5공중기동비행단 ‘파라업’ 공예 동아리는 못 쓰는 낙하산 줄로 ‘마스크 목걸이’를 만들어 기부하기도 했다. 또, 정보체계관리단의 ‘너의 재능, 샘이 나’는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다는 슬로건(구호) 하에 프로 그래밍·포토샵·타이포그래피·헬스·



3훈련비 ‘사진두드림’이 지역 어르신들의 장수 사진을 찍어드리고 있다.

회계·피아노·취업 정보 등 청년 장병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직접 골라 기획부터 홍보까지 모두 동아리 회원들이 직접 진행하기도 한다.

영국 공군의 E-스포츠 동아리도 화제다. 영국에서 축구 다음으로 큰 취미동아리로 성장했다는 E-스포츠 동아리는 코로나 블루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돼 천명 가까운 회원 수를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 이 동아리는 취미 활동이기도 하지만 전투 병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일거양득(一舉兩得)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생활문화의 내용은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독서나 음악감상을 취미라고 했던 586세대*와 달리 청년 세대의 취미는 E-스포츠를 비롯해 웹툰, 웹소설 창작이나 요리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공군 부대 내에서 생활문화/생활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병 세대의 니즈(needs)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일 것이고, 다음으로 그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섬세하게 제도를 만드는 일일 터다. 연애에서 디테일(detail)이 중요하듯이 생활문화/생활예술 활동에서도 디테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5비 '파라업'이 못 쓰는 낙하산 줄을 재활용 해 '마스크 목걸이'를 만들고 있다.



정보체계관리단 '너의 재능, 샘이 나'가 생활관 휴게실에서 '앱(APP) 사용자 경험 리서치'를 주제로 세미나를 하고 있다.

* 586세대: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1960년대생을 지칭하는 표현. 1990년대 중후반에는 30대여서 '386세대'라고 불렸고, 2023년 기준으로 50대 중반~60대 초반의 나이로 '586세대/686세대'로 불리고 있다.



강윤주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2007년부터 국내 생활예술 활동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 『생활예술: 삶을 바꾸는 예술, 예술을 바꾸는 삶(2007년, 공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예술(2020년, 공저)』을 기획·집필했고, 최근에는 '협동조합 삶의예술(Lebenskunst)'의 대표로 '소셜드라마클럽'이라는 시민연극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제작, 기획뿐만 아니라 배우로 무대에 서기도 한다.



공군홍보대사 알리 항공작전 임무환경체험 - 비행환경적응훈련 수료!



지난 6월 공군 홍보대사로 임명된 가수 '알리'는 10월 4일(수) 항공 우주의료원에서 「제9기 국민조종사」 선발과정의 하나인 비행환경 적응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훈련에 참여한 알리가 다른 국민조종사 후보자들과 함께 중력가속도 내성훈련(6G 20초)을 포함, 저압실 비행훈련·비상탈출훈련 등의 훈련을 성공적으로 수료했습니다.



중력가속도 내성훈련

아주 즐거운 경험이었고,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냥 공군 홍보대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군 홍보대사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행환경적응훈련 세 가지를 모두 마쳤는데, 가장 어려웠던 건 중력가속도 내성훈련이었습니다. '기절하면 어떡하지?' 이런 중압감이 들어 많이 긴장했는데, 6G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저압실 비행훈련

저압실 비행훈련 때는 국민조종사 후보분들과 다 함께 하는 자리라 그런지 서로 건강을 체크하며 진행했습니다. 25,000ft에서 마스크를 떼고 느꼈던 어지럽거나, 배가 좀 뜨겁거나, 트림이 나오는 현상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저산소혈증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비상탈출훈련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을 국민조종사 후보분들과 저는 편안하게 경험했다면 우리 공군 여러분들께서는 이 상황, 이 환경 안에서 굉장히 치밀한 임무 수행을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언제나 건강관리, 자기관리를 철저히 게 잘하셔야 하는 분들이구나. 정말 노력하시는 분들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임무 수행하고 계신 공군 장병 여러분! 건강관리 항상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경험한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시는 자랑스러운 공군임을 오늘도 기억하겠습니다. 공군 장병 여러분 파이팅하십시오. 필승! 

이스라엘 재외국민 귀국 지원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KC-330(시그너스)이 10월 13일(금), 이스라엘-하마스의 무력충돌이 급격히 심화하는 상황에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 163명(장기 체류자 81명, 단기 여행객 82명)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텔아비브(Tel Aviv) 벤구리온(Ben Gurion)공항에 급파됐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일본인 51명, 싱가포르인 6명 등을 함께 탑승시켜 출발한 KC-330은 10월 14일(토) 밤, 서울공항으로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위험한 현장에서 벗어나 기뻐하는 국민들의 박수와 감사인사로 기내는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편안한 비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지만, 서울공항에 무사히 내려드리는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었다는 장병들의 임무 현장 사진과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KC-330을 정비중인 정비사의 모습

신속대응팀이 제5공중기동비행단에서 이스라엘 재외국민 귀국 지원 임무를 앞두고 출정 신고를 하고 있다.



KC-330에 탑승하는 공정통제사(CCT)



이륙을 준비중인 조종사들의 모습



항공의무후송팀이 이륙 전 준비사항을 점검·토의하고 있다.>



KC-330이 이스라엘 재외국민 귀국 지원 임무를 위해 이륙하고 있다.>



작전 요원이 13일(현지시각) 저녁,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한 뒤 항공기에서 내리기 전 방탄조끼 등 안전용품을 점검하고 있다.>



외교부 신속대응팀(노란 조끼)과 임무통제관 안효삼 대령이 13일(현지 시각) 저녁,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해 탑승 대상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공정통제사(CCT)들이 KC-330 탑승에 앞서 우리 교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나눠주고 있다.>



KC-330 조종사 박종현 소령이 우리 교민들에게 탑승을 안내하고 있다.>



KC-330에 무사히 탑승한 우리 교민들이 이스라엘 국기와 태극기를 들어 환하게 웃고 있다.>



KC-330에 무사히 탑승한 우리 교민들이 태극기를 들어 환하게 웃고 있다.

작전요원 3인의 인터뷰

통제관

안효삼 대령 (공사 47기, 조종)

제5공중기동비행단 항공작전전대 항공작전전대장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재외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탄조끼와 방탄모를 준비해가는 등 우발상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로켓/미사일을 요격하는 폭발음을 직접 들으며 임무를 수행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무섭고, 불안해서가 아니라 요격되지 않고 지상으로 떨어질지 어떻게 작전을 수행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을 비롯해 일본, 싱가포르 국민 대부분이 임무 요원들의 통제에 잘 따라주고,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KC-330 선임 임무 기장*

안병수 소령 (공사 57기, 조종)

제5공중기동비행단 제261비행대대 비행대장

이스라엘까지 약 12만km를 한 번에 비행했고, 교민 탑승 후에는 연료 제한으로 중간 기착지(스리랑카 콜롬보)를 설정해 비행했습니다. 군용기라 경로상 국가에 영공 통과 승인을 받아야 했고, 경로 운영·기상 등에 기타 제한사항은 없는지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최단 시간 내에 임무를 완수해야 했기 때문에 무박 2일 임무로 진행됐는데,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다 합치면 40시간이 넘기에 임무 요원 컨디션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정비감독관

임용순 준위 (준사관 108기, 항공기기체정비)

제5공중기동비행단 항공기정비대대 제261정비중대 정비반장

‘우리가 아니면 누가 가겠습니까?’란 생각으로 굳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현지에 도착했을 때는 우려와 달리 조용하고 한산했으나, 화물을 포장하는 데 멀지 않은 거리에서 폭발음이 몇 차례 발생해 긴장한 채 화물 포장과 적재를 했습니다. 부여된 시간 내에 임무를 마쳐야 하는데 현지 지상조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마음을 줄이기도 했고, 계획대비 탑승 인원증가·수화물 도착 지연 등으로 화물을 포장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



* 기장(PIC, Pilot in command) 비행 중 항공기의 운항 및 안전을 책임지는 조종사

E-Book 자료관

매월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월간『공군』

E-Book으로 월간『공군』을 만나면 **환경보호까지!**

창간호부터 최신호까지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공군지를 온라인에서
afzine.co.kr



E-Book 열람은 물론 구독 신청,
구독 취소, 주소 변경도 가능합니다.
편집실에 전할 이야기와 제보는
'독자 의견'으로 보내주십시오!

접속방법 (택1)

검색사이트에서 '공군지' 혹은 '월간 공군'을 검색하세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주소창에 afzine.co.kr을 입력하세요.



제9기 국민조종사/제2기 명예조종사 비행체험 및 임명식

10월 21일(토) 제9기 국민조종사 비행체험 및 임명식이 거행됐습니다. 692대 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국민조종사 4명과 韓美동맹 70주년 기념 명예조종사로 선정된 美 제51전투비행단 미셸 장(Michelle Chang) 중위가 이 행사의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오전에는 국산 고등훈련기 T-50을 타고 서해대교부터 동쪽 정동진과 삼척 해안까지 한반도를 횡단하며, 대한민국 영공에서 영토 곳곳을 둘러보고, 임무 구역에서 공중 전투·전술 임무 기동을 체험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 국제 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3(서울 ADEX 2023)’ 행사장에서 정상화 前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공군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와 국민조종사 및 명예조종사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국민조종사 패치



블랙이글스가 비행하는 서울 ADEX 2023 행사장 전경



제2기 명예조종사 미셀 장 美 중위가 T-50 비행 체험 중 한미동맹 70주년 로고가 그려진 천을 들어 보이고 있다.



**최연소 4대 극지 마라톤 완주자
유동현 (26세, 대학생)**

2018년 한 해 동안 4대 극지 마라톤(사하라 사막·고비사막·아타카마사막·남극)을 완주해 '세계 최연소 극지 마라톤 그랜드슬래머'가 돼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황덕현 씨의 평생의 꿈인 세계 일주를 지원하기 위해 '당신의 꿈에 도전하세요' 공모전에 지원해 1등으로 선정되어 상금 500만 원으로 1차 여행(베트남·싱가포르·필리핀, 12일)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국민조종사를 시작으로 비행을 배워 황덕현 씨와 함께 휠체어로 갈 수 없는 곳을 여행하며 다른 분들에게도 도전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도전

**순직 조종사 친형
김종섭 (49세, 회사원)**

이루지 못했던 조종사의 꿈, 같은 꿈을 꾸던 동생은 공군사관학교 졸업 후 조종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5년 7월 13일 동생이 야간작전 중 순직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국민조종사 최종 선발 소식에 부모님의 상처가 덧나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부모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고생했다고, 큰일 해줘서 고맙다고 다독여주셨습니다. 그 말에 동생에 대한 그리움과 책임감으로 힘들었던 시간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행사 당일, 공군의 배려로 18년 만에 동생이 순직한 장소인 서해 상공으로 날아가 동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헌신



**뇌종양 전문의
김의현 (47세, 신경외과 의사)**

잘 알아들을 수 없지만, 비행 중 끊임없이 이어지는 조종사들의 교신은 멋들어진 배경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동해에서의 갑작스러운 활강 때는 극한의 자유로움을 느꼈고, 전투 기동 중엔 긴박함과 쾌감을 느꼈습니다. 착륙 후 캐노피가 열리고, 내리기 싫어 고집부리며 걸터앉아 있을 때 기분 좋게 불어온 바람결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가능한 한 오래 이 기억을 간직하고 싶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살려야 하는 직업임에도, 환자를 잃기도 합니다. 때론 용기를 잃고 지치죠. 꿈 같은 하루를 보내고 다시 치열한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용기 내보려 합니다.

전문성

팀워크

**베트남에서 온 이민자
이호정 (41세, 주부)**

어릴 적부터 조종사가 되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이 여유롭지 못해 현실에 맞춰 포기해야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대학교 재학 중 외국인들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치다 남편을 만났습니다. 2001년에 한국에 와서 2007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대학을 다니고, 은행원과 베트남어 강사로 일했습니다. 또, 경비행기 조종사 자격 취득, 스카이다이빙 등 다양한 도전을 했습니다. 이번에 국민조종사로 뽑혀 자랑스러운 엄마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결혼이민자들에게 제 도전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



왼쪽에서부터 차례로 제2기 명예조종사 미셀 장 美 중위, 제9기 국민조종사 이호정·김종섭·김의현·유동현님



2시 방향부터 시계방향으로 제2기 명예조종사 미셀 장 美 중위, 제9기 국민조종사 이호정·김의현·유동현·김종섭님

그래픽으로 보는 공군

HH-47 CHINOOK

1991년 12월에 공군에 HH-47D 6대가 처음 도입됐다. HH-47D는 탠덤로터*로 유명한 헬리콥터로, 공군이 운용 중인 헬기 가운데 가장 크다. 또, CH-47D와 달리 탐색구조 임무에 특화된 대형연료탱크를 장착하고 있어 장거리 탐색구조나 화물 공수에 주로 사용된다. 내부에 화물을 22,000파운드(약 9,979kg) 적재할 수 있으며, 수상착수능력을 갖췄다. 병력·군수 물자 수송과 조난자 탐색구조는 물론, 산불 진화, 코로나19 백신 수송 등을 수행한 전천후 수송 헬기다. 

* 탠덤로터(Tandem rotors): 꼬리회전날개(tail rotor) 없이 대형 회전날개(rotor) 2개를 직렬/병렬로 배치하고 서로 반대로 회전하게 해서 동체의 역회전을 억제하는 헬리콥터 구조





길이	30.12m
폭(너비)	5.03m
높이	5.79m
최대이륙중량	24,490 kg
최대속도	314.84km/h

Aero Detail

미국의 주요 폭격기

세계 최장기 운용 군용기, B-52



Mk.117 750파운드 폭탄을 투하하고 있는 B-52F



개발 초기에 직렬형 조종석으로 설계되었던 YB-52 폭격기 시제기

B-52는 ‘세계 최장기 운용 군용기’로 기네스 세계기록(Guinness World Records)에 등재된 폭격기다. 1955년에 실전배치된 지 50여 년이 넘도록 미국 공군의 주력 폭격기로 쓰이고 있는 B-52는 끊임없는 개량을 통해 앞으로도 장기간 운용될 전망이다.

이러한 B-52의 탄생은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을 투하해 전쟁을 승리로 이끈 B-29 폭격기는 미국 장거리 전략폭격기의 원조였다. 미국은 B-29의 후속 기종으로 더욱 긴 항속거리와 탑재량을 갖춘 초대형 전략폭격기 B-36 피스메이커를 개발했다. 하지만 B-36은 왕복엔진 6기와 제트엔진 2기를 함께 사용하는 과도기 폭격기였다.

당시 미국 공군은 제트엔진이 항공기 엔진의 대세가 될 것을 예상하고, 제트엔진을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장거리 폭격기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B-36 이후 제트추진 폭격기로는 B-47이 개발됐지만, B-47은 항속거리와 무장 탑재량이 부족했다. 미국 공군이 추구한 차세대 전략 제트 폭격기 계획에 맞춰 보잉은 1946년에 신형기 개발안을 미국 공군에 제시했고, 이후 8년의 개발 끝에 드디어 YB-52 폭격기가 1952년 4월에 등장했다.

B-52는 1950년대부터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운용된 만큼 다양한 파생형이 존재한다. A형부터 시작되는 B-52 파생형은 B-52J형이 최종형이다. 다만 B-52J는 2021년에 엔진 성능개량(F130)이 결정된 기종으로, 2020년대 말까지는 B-52H가 최신형이었다. B-52H는 기존 B-52G형의 엔진을 터보제트 엔진에서 터보팬 엔진으로 교체한 것이 특징이다.



B-52H 폭격기는 엔진을 포함한 성능개량을 통해 B-52J로 재명명됐다.

B-52는 폭격기답게 대량의 무장 탑재능력을 보인다. 무장은 최대 70,000lb(약 31,750kg) 이상 탑재할 수 있고, 핵탄두부터 기뢰까지 미국 공군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무장 운용이 가능하다. 무장별 탑재량을 정리하면, 500lb(약 226.8kg) 폭탄은 51발, 1,000lb 폭탄은 30발, 2,000lb 폭탄 20발, 핵탄두 미사일 AGM-129는 12발, AGM-86 순항미사일은 20발, 자유낙하식 핵폭탄은 8발에 첨단 무장인 AGM-183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탑재할 수 있다.

현재 운용 중인 B-52H 72대는 1960년대에 운용되던 B-52H와 외형만 같을 뿐 내부는 새로운 기종이라고 할 수 있다. 신형 B-52H는 현대전에 적합한 각종 공격, 항법 장비와 통신장비, 센서, 데이터링크, 데이터버스, 전자전/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어 향후 등장하게 될 무장까지 운용이 가능한 첨단 폭격기로 개량됐다. 수명연장 프로그램도 지속해서 연구되고 있어 보잉사는 B-52가 2050년까지 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공군에게 B-52는 초음속 폭격기 B-1, 스텔스 폭격기 B-2가 실전배치 됐음에도 불구하고 퇴역시킬 수 없는 중요한 전력이다. 장기간 운용으로 입증된 신뢰성은 B-52의

장점이고, B-52의 막대한 무장탑재능력과 장거리 항속 능력은 신형 폭격기들이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가치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할아버지, 아버지와 아들까지 3대에 걸쳐 조종한 B-52 폭격기는 거듭된 개량을 통해 앞으로 손자까지 4대에 걸쳐 조종하는 전설의 노장 폭격기가 될지도 모른다.

| 가변익 초음속 전략 폭격기, B-1 랜서 |



1977년 6월에 개발이 전면 취소된 B-1A

B-1 폭격기는 B-52를 대체하기 위해 1969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전략 폭격기다. 1호기는 1974년 12월 최초비행에 성공했지만, 카터 정부에 의해 1977년 6월에 개발이 전면 취소됐다. 대량생산이 시작되기도 전에 개발이 취소돼 B-1이란 이름은 역사 속에 묻힐 뻔했다. 하지만 레이건 정부가 B-1 폭격기의 부활을 결정해 지금의 B-1 폭격기가 탄생했다.

1980년대에 양산된 B-1B형은 1970년대에 시제기만 제작됐던 B-1A형과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최대속도와 스텔스 성능이다. B-1B는 스텔스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B-1A의 초음속 성능을 희생했다. B-1A의 공기 흡입구는 마하 2급의 고속 침투성능을 얻기 위해 가변식으로 설계됐다. 반면 B-1B는 이를 고정식으로 바꾸고, 엔진 팬 블레이드가 정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계해 레이더 반사 단면적(RCS)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스텔스 관점에서 재설계를 한 덕분에 B-1B는 B-1A에 비해 레이더 반사단면적을 10분 1 이하로 줄일 수 있었다.

1991년에 발생한 걸프전에 미군 작전기는 대부분 참가했지만 주력기 중에서 유일하게 B-1B는 투입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B-1의 성능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걸프전 당시까지 B-1은 전술폭격 훈련을 한 적이 없어 갑자기 참전할 수는 없었다.

1991년 9월, 냉전 해체에 따른 핵 공격 태세 변화에 따라 B-1은 일반 폭격 임무 수행도 가능하게 됐다. 일반 폭격 임무에서 B-1B는 3개의 폭탄창에 500lb(약 226.8kg) 일반 폭탄을 각 28발씩 총 84발을 탑재할 수 있다. 동체 하부에도 추가로 44발 탑재할 수 있으므로 B-1B의 500lb 폭탄 최대 탑재량은 무려 128발에 달한다. 2,000lb(약 907.18kg) 폭탄은 각 폭탄창에 8발, 외부에 14발 등 총 38발을 탑재할 수 있어 무려 34t의 폭탄탑재량을 보인다. 이는 B-52가 베트남전 당시 폭탄 108발, 27t의 무장을 탑재한 것보다 우수한 탑재능력이다.

그뿐만 아니라 B-1은 일반 폭격 임무에서 B-52보다 낮게 비행할 수 있고, 저고도 비행 시 기동성이나 탑승감 등도 B-52보다 우수하다. B-1B는 일반 폭격 임무를 수행할 때, 과거의 중폭격기처럼 고고도에서 편대비행으로 폭탄을 투하하지 않고, 단기로 초저고도를 침투해 폭탄을 투하한다.

저고도 진입 시 고도는 60~100m에 불과하며, 920km/h의 속도로 비행한다. 비행고도를 약간 높이면 1,000km/h 이상, 단시간이면 초저고도에서 음속돌파도 가능하다. 초저고도 비행 시 지형에 따른 고도와 속도는 자동으로 조절된다. 원래 B-1은 240대를 생산해 B-52를 대체할 계획이었지만 후속 기종이 B-2로 결정되면서 100대를 끝으로 생산이 종료됐다. B-1 폭격기는 B-2 스텔스 폭격기가 충분한 수량이 생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 운용되다가 2025년부터 신형 B-21 폭격기와 교체되면서 2030년대 중반에는 모두 퇴역할 전망이다.



1981년 레이건 정부는 개발이 취소된 B-1A를 B-1B로 다시 재탄생시켰다.

현존 최고의 스텔스 폭격기, B-2



처음부터 스텔스기로 설계된 B-2 폭격기

B-2는 구소련의 방공망을 안전하게 뚫고 비행하기 위해 처음부터 제대로 스텔스 성능을 갖춘 폭격기로 개발됐다. 초저공 고속침투를 전문으로 하는 B-1 폭격기에도 스텔스 기술이 적용됐지만, 엄중히 방호하는 구소련의 방공망을 뚫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미국은 초저공 고속침투보다는 우수한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해 고공을 은밀히 침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러한 전술 변화의 하나로 미국 공군은 1980년부터 극비리에 스텔스 폭격기 개발을 시작했다. 높은 보안 수준으로 일반인에게 베일에 싸여있던 B-2 폭격기는 1988년 11월에 캘리포니아 팜데일 공장에서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출고 행사에는 소수의 관계자와 언론인이 초청됐지만, 뉴스는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미국 공군은 B-2를 165대 양산할 구상이었지만 의회가 비용 문제로 B-2의 양산을 반대해 생산 계획은 134대에서 76대로 축소됐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산된 항공기는



미익이 없는 전익기 형태의 B-2는 매우 우수한 스텔스 성능을 보인다.

결국 21대(테스트용 포함)에 불과했다.

B-2A는 1989년 7월에 초도비행에 성공했고, 1993년 12월 화이트맨 공군기지의 제509 폭격비행단에 양산 1호기가 처음 배치됐다. 1995년부터 작전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1996년 이후에 이라크에서 벌어진 ‘데저트 스트라이크’ 작전이나 1998년의 ‘데저트 썬더/데저트 폭스’ 작

전에 투입은 가능했지만, B-2는 투입되지 않았다. 이들 작전에서 실제 스텔스 공격은 쿠웨이트의 아마드 알 자벨 기지에 전개된 10대의 F-117A가 담당했다.

B-2A의 최초 실전 참가는 1999년 3월 2일부터 개시된 ‘얼라이드 포스’ 작전이었다. 화이트맨 공군기지를 이륙한 2대의 B-2A는 십여 시간에 걸친 비행으로 유고슬라비아 상공에 도달해 16발의 GBU-31/B 2,000lb급 합동직격탄(JDAM)을 투하했다. 개전 첫날 공격에는 B-2A 외에도 F-117A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이 사용됐고, 기습은 성공적이었다.

개전 후 65일째인 5월 7일, 베오그라드를 폭격한 B-2는 지정된 좌표에 5발의 합동직격탄을 투하했다. 그러나 명중된 곳은 세르비아의 전략목표가 아닌 중국 대사관이었다. 중국 대사관 폭격으로 사상자가 4명 발생했고, 중국은 이에 관해 크게 항의했다. 중국은 NATO에 즉각 공격정지를 요청했지만, 폭격작전은 6월 1일까지 계속됐다.



Mk.82 47발을 투하하는 B-2 폭격기

미국은 대사관 건물을 유고슬라비아군의 무기 조달청으로 오인해 폭격했다고 해명하고, 중국에 배상금을 지급했다. 미국의 이 정밀한 오폭은 핀포인트* 신화를 붕괴시켰다고도 볼 수 있지만, 미국이 일부러 중국 대사관을 폭격했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얼라이드 포스’ 작전 이후 B-2A는 아프가니스탄의 ‘엔듀어링 프리덤’ 작전에서도 스텔스 공격 임무를 수행했다.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까지는 직선거리로도 11,670km 이상이었다. 이 정도의 장거리 공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왕복 40시간이 넘는 비행이 필요했고, 44시간 이상 걸리는 최장 시간 임무 기록도 있었다.

냉전 시대에 개발된 B-2는 여러 실전 사례에서 활용도를 입증했지만 20대에 불과한 소수 운용과 비용 문제 때문에 후계 기종인 B-21로 2032년까지 완전히 대체될 예정이다.

미국 폭격기의 미래, B-21



2022년에 처음 대중에게 공개된 B-21 폭격기는 향후 6세대 전투기와 함께 미공군의 중추 전력이 될 전망이다.

2011년에 사업계획이 수립돼 2015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B-21 폭격기는 2023년 올해 첫 비행을 앞둔 최신 스텔스 전략 폭격기다. 2022년 대중에게 처음 공개된 B-21 폭격기는 기존 B-2와 유사한 형상이지만 크기는 좀 더 작고, 항속거리는 오히려 더 길 것으로 보도됐다. B-21의 스텔스 성능과 공기역학적인 성능은 기존 B-2보다 향상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향후

* 핀포인트(Pin Point): 미사일이나 폭탄을 사용해 한 치의 오차 없이 타격 대상을 정확히 겨냥하거나 표적의 주 타격점의 위치·좌표

B-21이 수행하게 될 임무와 가치다. 과거 B-52부터 B-2까지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은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량의 무장 운반을 통해 지표의 표적을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B-21은 이러한 폭격기 본연의 임무를 초월해 앞으로 장거리 센서-슈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B-21은 기체에 내장된 다수의 배열 안테나와 센서를 통해 정찰기와 같이 전장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면서 기존 전자전기나 대공제압기처럼 공격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적 중심에 침투해 E-3, E-8과 같은 전장 통제 역할까지 일부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

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B-21은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또는 지향성에너지무기를 탑재해 적 전투기 대응능력까지 갖추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능력들은 전장에서 기존 전략 폭격기의 가치를 초월하는 것들이다.

2027부터 전력화가 시작될 B-21은 향후 미국 폭격기의 미래가 될 것이다. 미국은 B-52 개발 이후 후속 기종으로 B-1, B-2를 각각 차례로 개발했지만, 그 어느 기종도 앞서 운용된 폭격기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했다. 미국 공군은 B-21을 B-52뿐만 아니라 B-1, B-2까지 차례대로 모두 대체할 계획이어서 향후 B-21은 6세대 전투기와 함께 장기간 미국 공군의 중추 전력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B-21은 B-2보다 크기는 작지만 항속거리는 더 길다.



임상민 박사

한국항공대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연구 및 개발을 맡았으며, 현재는 방위사업청 항공분야 전문관으로 항공무기 획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투기의 이해』, 『항공기 체계 효과도의 이해』 등 8권 저술, 1993년부터 항공/군사지, 항공/군사학회 등에 수백여 편의 원고 및 논문을 기고했다.



박물관에서 본 세계 공군

공대공미사일 최초사용, 대만공군

동아시아에 있는 타이완은 한국식 발음으로 대만(臺灣)으로 불리며, 79개의 도서(島嶼)를 가졌다. 수도는 타이베이(Taipei)이며 인구 2,357만 명에 면적은 36,197km², 연 국민개인소득은 3만 3,565달러 수준이다. 군사력은 상비군 약 159,000명(육군 94,000, 해군 40,000, 공군 25,000), 예비군 165만 7천 명을 보유하고 있다. 병역제도는 2018년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청년들은 4개월의 군사훈련으로 군 복무를 대체했다. 그러나 직업군인 지원 인력 부족, 안보정세 변화 등으로 2024년부터 12개월 의무복무의 징병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대만 공군관학교 생도들의 분열행사 모습

포퓰리즘(Populism) 국방정책과 대만군의 현실

타이베이에서 대만 총통부에서 가까운 국군역사박물관 외벽에는 ‘군인모집’을 홍보하는 대형사진들이 붙어있다. 1961년에 개관한 국군역사박물관은 국민혁명군 이후부터 중일전쟁·국공내전*과 국군발전과정을 담은 사료를 보존하고 있다. 총 5개의 전시실은 국민혁명군의 창군과 황포군관학교 개교, 중국군의 전신(前身)인 국민혁명군의 중국 통일과정·항일전쟁, 난징대학살, 진먼섬 요새 등과 관련된 유물이 전시돼 100년 전통의 대만군 역사를 재현한다.

박물관과 연결된 군인호텔에서 만난 군 간부의 말에 의하면, 군인들에게는 전국의 복지시설 이용 권한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대만군은 모병제 시행 이후, 병력확보 곤란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단다. 격오지 근무, 업무 위험성, 낮은 급여 등의 복무여건의 군대가 신세대에게 매력 있는 직장이지 못했다. 급기야 여군모집 확충, 지원 나이 상향조정, 신체조건 대폭 완화 등의 응급처방을 했지만, 모집목표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단다. 심지어 육군군관(사관)학교의 신입생도 선발도 정원보다 지원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모병제라는 안보 포퓰리즘의 안타까운 결말을 보는 듯했다.



대만 타이베이에 있는 국군역사박물관 전경

중공군 침공을 격퇴한 진먼섬의 대만군

진먼섬(金門島·금문도)은 대만의 가오슝에서 296km, 중국에서는 4.4km 떨어져 있다. 크기는 약 152km² (백령도의 약 3.3배)로 동서길이는 약 20km, 남북길이는 5~10km다. 섬의 등록인구는 약 13만 명이지만, 상주 주민은 10만 명 정도이다. 이 섬은 대만의 최전선으로 한국의 백령도·연평도와 흡사하다. 1949년 10월 25일, 정크선 700척에 분승(分乘)한 중공군 17,000명이 진먼섬 서쪽 해안에 상륙했다.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대만군 35,000명은 공·해군의 지원 아래 철저하게 반격했다. 중공군은 전사자 8,000명, 포로 7,000명을 남기고, 본토로 도주했다. 중공군은 1950년 7월 26일에도 인근 도서를 침공했지만, 700명의 전사자만 남겼다. 대만군은 두 번의 승전으로 대륙에 패배했다는 굴욕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중공군과 대만군의 진먼섬 포격전 기념탑 전경

* 국공내전(國共內戰): 중국에서 항일전쟁이 끝난 후 1927년 4월~1950년 5월에 중국의 패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 사이의 두 차례의 내전. 중국에서는 해방전쟁(解放戰爭)이라고도 부른다.

최초의 공대공미사일과 진먼섬 공중전

타이베이 중양역에서 352km 떨어진 약 274만 인구의 대만 최대 항구도시 가오슝에는 공·육·해군 군관학교를 포함한 군사교육 기관이 모여있다. 공군군관학교 정문 옆에 있었던 공군박물관은 최근 ‘공군체험전시관’으로 통합됐다. 1920년에 창설된 대만공군은 중일전쟁, 국공내전 시 대부분 미군 항공기로 전쟁을 치렀다. 전시실에는 시대순으로 전쟁영웅 소개와 모형항공기가 진열돼 장구(長久)한 공군 역사를 설명한다. 특히 1958년 9월 24일, 중국 본토와 4km 떨어진 진먼섬 공중전에서 최초로 공대공미사일이 사용됐다. 중국은 지상 포격전을 한꺼번에 타개하고자, MiG-17 100대를 출격시켰다. 이에 대만의 F-86 세이버 32대가 긴급 발진했다. 중국은 전투기 성능과 수적 우위로 자신만만했지만, 대만의 F-86은 미국제 AIM-9 공대공미사일로 무장하고 있었다. 한국전쟁에서의 실전 경험이 있던 MiG기 조종사들의 항공기에는 오직 3문의 기관포만 장착돼 있었다. 미사일과 기관포의 대결로 3대의 F-86이 추락했지만, 20대의 MiG기가 격추됐다. 미사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대패한 중국은 두 번 다시 대만해협에 공군기를 출격시키지 못했다. 신무기가 공중전 개념을 바꾼 대표적인 사례다.



가오슝의 대만 공군군관학교 정문 전경



대만공군 창군 이후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전시실



대만 공군체험전시관에 진열된 항공기들



1949년 10월 중공군의 진먼섬 침공 시 대만군에게 포로가 되는 공산군 그림

아르바이트 여군(여학생)의 일사불란한 군사훈련 시범

중국 본토가 보이는 진먼도 동굴포병 진지의 8인치 곡사포 앞에 10여 명의 여군이 정렬해 있었다. 이어 포반장 육성이 마이크를 흘려나왔다. “전방에 적 출현, 사격준비!” 4명의 탄약수가 무거운 포탄을 운반대에 올린 후 킁킁거리며 화포로 이동한다. “장전 완료, 쏘!”라는 사격명령에 포수는 고개를 뒤로 확 젖히며 힘껏 방아 끈을 당긴다. “팡!” 하는 공포탄 포성과 함께 흰 연기가 포상을 뒤덮는다. 이어서 “좌로 300, 더하기 500, 수정!”이라는 다급한 관측병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장약 교체와 포탄 재장전, 이어지는 폭음은 관람객의 정신을 빼놓는다. “명중, 적 완전 제압!” 방송이 나온 후, 일렬로 늘어선 여군들의 경례와 함께 시범은 끝났다. 관람객의 우렁찬 박수가 끊어지지 않는다. 수십kg 포탄을 번쩍 들고 동분서주하는 여군들이 믿음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다. 쏟아지는 기념촬영 요청에 활짝 웃으며 자세를 취해 준다. 알고 보니 이들은 ‘아르바이트 여학생’이란 다. 하루에 두세 번 열리는 이 행사는 진먼섬 최고의 인기 관광상품이다. 



진먼섬 동굴 포격 진지에서 4명의 아르바이트 여군(여학생)이 사격 시범을 보이기 위해 8인치 화포 포탄을 운반 중이다.



신중태 교수

2010년 국내 최초로 충남대에서 군사학박사를 취득했다. 충남대·국군간호사·조선대에서 전쟁사를 강의하면서, 세계 60여 개국의 군사박물관과 전쟁유적지를 답사했다. 현재도 계속 답사여행을 하면서 『세계의 전쟁유적지를 찾아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내 옆의 공군인

제53화

40년 검도 인생,
공군사관학교
박상섭 검도교수



안녕하십니까? 공군사관학교 항공체육처 박상섭 검도교수입니다. 저는 선수 시절 제9회~제12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95~'03)에서 은메달 4개·동메달 1개를, 제77회~제81회 전국체육대회('00~'04)에서는 금메달 4개·은메달 1개를 획득했습니다. 어릴 적 고향인 청주시 분평동 하늘의 비행 훈련을 매일 보고 자란 저와 공군과의 인연은 2013년 검도 수업 출강으로 시작됐습니다. 유도·태권도처럼 검도도 군무원 교수로 통일되면서 2022년 4월부터 항공체육교수로서 생도들의 검도 수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박상섭 교수가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을 지도하고 있는 모습

검도(劍道)란?

동네 아이들이 모여 나무막대기로 하던 칼싸움이 검도의 원형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편싸움에, 심지어는 궁중에서까지 봉희(棒戲)나 격검(擊劍)이란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현존하는 검법 중 가장 오래된 검법이자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검법인 본국검법(本國劍法)엔 격검이 신라 화랑도의 필수 수련과목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대검법의 정수인 본국검법과 조선세법(朝鮮勢法)은 현대검도의 모태죠. 검도는 호구를 착용하고, 칼을 들고 겨루기를 하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승패를 가릅니다. 칼은 교예와 경기 구분에 따라 도(刀)·검(劍)·목도(木刀)·죽도(竹刀)로 구별합니다. 현재의 검도 경기가 만들어진 건 불과 100여 년 전으로, 아직 세계적 스포츠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구(用具)를 과학적으로 개량하고, 경기방식을 현대화해 전세계인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체육훈장* 맹호장

체육훈장은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등의 세계체육대회에서 메달을 받아 특정 점수를 쌓은 선수나 뛰어난 성과를 거둔 감독, 체육 관련 단체장 등에게 수여됩니다. 검도는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검도선수권대회' 성적만 반영됩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 종목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검도로 1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상 수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까지 검도인이 수상할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검도 맹호장 수상자는 4명뿐입니다.



박상섭 교수는 국위 선양과 검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체육훈장 맹호장을 수상했다.

* 체육훈장(體育勳章): 체육 발전에 공을 세운 국민 체육 향상에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청룡장(1등급·1,500점 이상)·맹호장(2등급·700점 이상)·거상장(3등급·400점 이상)·백마장(4등급·300점 이상)·기린장(5등급·250점 이상)으로 구성된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검도 시합

첫 번째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10회 세계 검도선수권대회’입니다. 일본에서 최초로 일본 선수를 이기고, 개인전 입상(3위)을 했습니다. 당시 남자 국가대표 감독님이자 중학생 때부터의 스승님이셨던故 고규철 감독님께서 늘 제 자랑을 하셨습니다.



제10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개인전 동메달



제10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후 단체 사진에서의 박상섭 교수(앞줄 가운데)

두 번째는 2003년 2월 ‘2003 SBS 검도왕대회’입니다. 제가 일반부에서 우승하고, 지도하던 청주농업고등학교 선수가 고등부에서 우승했으나, 대구 지하철 화재 긴급속보로 인터뷰가 전부 취소됐습니다. 참가선수 겸 참가선수의 스승으로서의 영광을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날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라 볼 수 있는 나이 차이의 후배 국가대표 선수들을 물리치고, 38세에 우승을 차지한 ‘2007년 추계실업 전국검도선수권대회’입니다. 2006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제13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 후 제외돼 좌절됐던 부당함·서러움을 날려버린 대회입니다.

지도자로서의 두 번째 삶

선수로 활동하던 기간인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청주 농업고등학교에서 6년간 최우수 감독으로 지도하며, 2000년부터 2011년까지는 청주시청에서 선수 겸 코치로 활동하고, 2012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청주시청 감독을 맡았습니다. 2021년 4월부터는 공사 검도교수로 임용됐고요. 본격적인 지도자의 길에 들어선 건 위에서 말씀드린 38세에 우승을 차지한 ‘2007년 추계실업 전국검도선수권대회’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주시청 감독 재직기간 우수한 성적을 낸 공로를 인정받아 청주시로부터 공로패를 받은 박상섭 감독

지도자가 된 이후에도 대회 출전을 계속하는 이유

보통 선수 은퇴 후 지도자가 되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훈련량도 적어지고, 체력도 떨어지면서 자연스레 도복을 입는 횃수가 줄어듭니다. 작년 '제12회 대한민국 검도8단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후 많은 원로가 훈련을 어디서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제가 공군사관학교에 임용돼 교수로 먹고살 만해져서 검도 수련도 게을리하고, 검도 시합이나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리라 여기신 거죠. 하지만 검도는 제 '삶' 이기에 계속해서 수련하고, 대회에도 출전하며, 제 명예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검도와 다른 무도와의 차별점은 저처럼 은퇴 후 나이가 들어도 시합에 참여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8단은 승단하기도 어렵지만, 8단 대회 우승은 더더욱 힘듭니다. 그런 대회에서 2년 연속 결승에 진출해 우승, 준우승을 차지한 것이 굉장한 영광입니다. 내년에는 다시 우승에 도전하겠습니다.(웃음)



공군사관학교 검도교수로 재직 중인 2022년 '제12회 대한민국 검도8단선수권대회'에서 우승(사진)하고, 2023년 '제13회 대한민국 검도8단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 한 박상섭 교수

좌우명과 앞으로의 목표



박상섭 교수의 죽도집에 새겨진 좌우명, 덕지체기(德智體技)

제 좌우명은 덕지체기(德智體技)입니다.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너른 마음, 잔머리 쓰지 않고 순리를 따르는 맑은 머리, 건강을 지켜야 많은 것을 할 수 있기에 튼튼한 몸, 부지런한 사람이 더 높게 더 멀리 갈 수 있기에 부지런함을 뜻합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우선, 검도 선수들이 아닌 심신단련·무도 정신 함양 등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을 위한 검도 교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제19회 이탈리아 세계 검도선수권대회 남자 국가대표 코치 제의가 왔으나 현 상황과 학교 여건으로 고사했습니다. 추후 남자 국가대표팀 코치 또는 감독을 맡아 대한민국과 공군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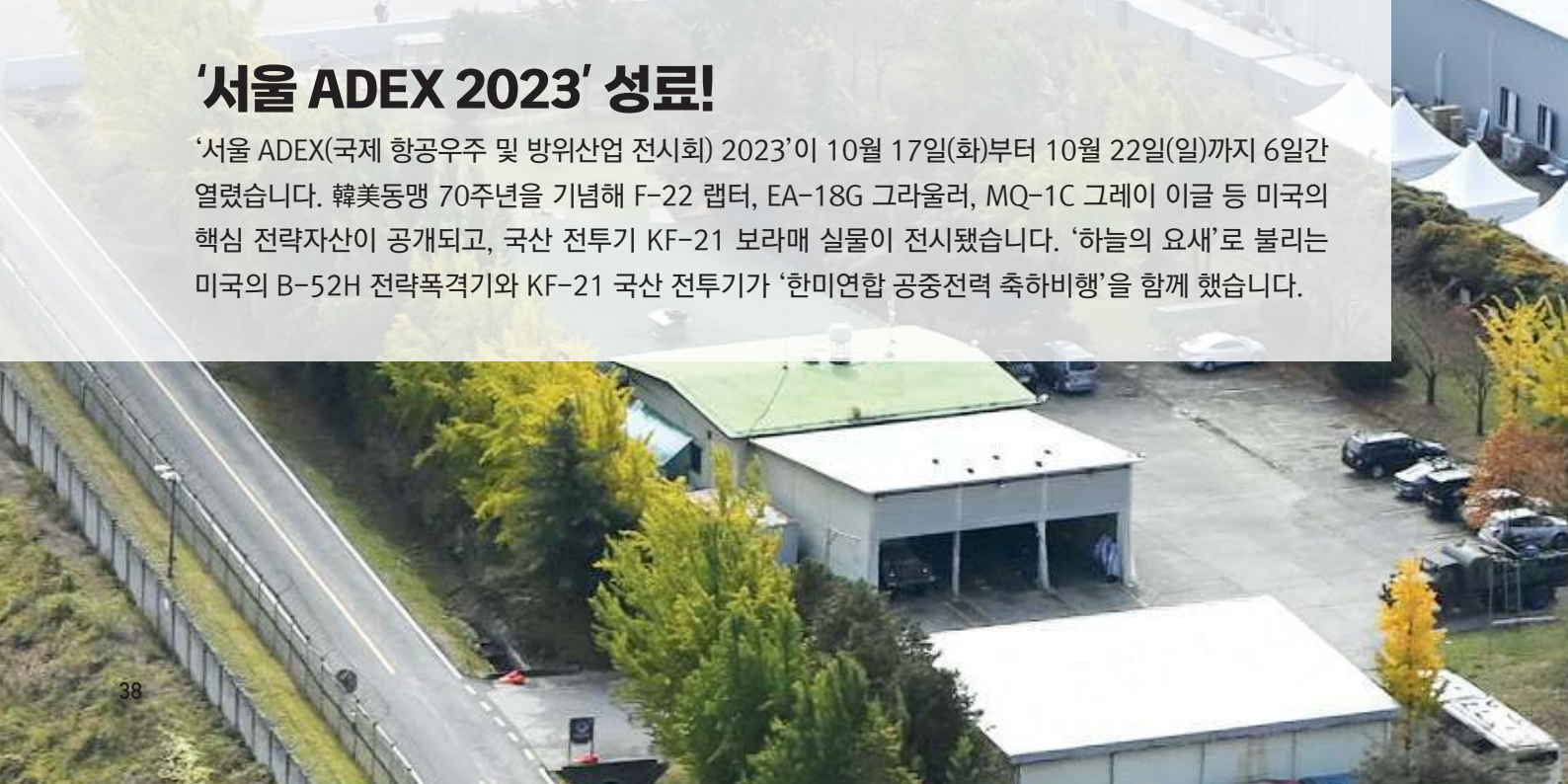
월간 『공군』 담당자와 인터뷰 중인 박상섭 교수

“저는 검도를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말·행동·습관 또는 생활을 알 수 있습니다. 검도를 40년간 습관처럼 해 온 제게 검도는 ‘삶’ 그 자체입니다.” 



‘서울 ADEX 2023’ 성료!

‘서울 ADEX(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3’이 10월 17일(화)부터 10월 22일(일)까지 6일간 열렸습니다. 韓美동맹 70주년을 기념해 F-22 랩터, EA-18G 그라울러, MQ-1C 그레이 이글 등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이 공개되고,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실물이 전시됐습니다. ‘하늘의 요새’로 불리는 미국의 B-52H 전략폭격기와 KF-21 국산 전투기가 ‘한미연합 공중전력 축하비행’을 함께 했습니다.









국산전투기 FA-50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달성

제8전투비행단 조종사와 정비사들이 10월 5일(목) 오후, FA-50 전투기 통산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을 자축하고 있다. 이번 기록은 FA-50 전투기를 최초로 도입한 103대대가 2013년 9월 16일 최초 비행을 나선 이래, 제8전투비행단 제103비행대대, 제203비행대대 그리고 제16전투비행단 제202전투비행대대가 함께 수립했다.



제40·41대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

이영수 참모총장은 10월 31일(화)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거행된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에서 제41대 참모총장으로 취임했다. 참모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강한 선진공군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② 미래 전장을 주도할 강력한 항공우주력 건설, ③ 군 기강이 확립된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 ④ 전문성, 합동성과 책임감을 겸비한 우수 인재 양성 등을 강조했다.



진급·보직신고



이영수 참모총장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에서 진급 및 보직신고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삼정검(三精檢) 수치(綬幟)를 받았다. 장성 진급자에게 수여하는 ‘삼정검’에는 공·육·해군이 일치하여 호국·통일·번영을 달성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수치’는 끈으로 된 깃발로 보직자의 계급과 이름, 임명 일자 등이 새겨져 있다.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이영수 참모총장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하며 “순국선열의 고귀한 헌신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힘, 공군이 수호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교육사령부

음악과 함께하는 그림 작품 전시회

교육사령부는 10월 11일(수), 가을을 맞아 장병과 군 가족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음악과 함께하는 그림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교육사 내 호수공원에서 신민상 작가의 출품작들로 진행됐다. 단풍나무 길 사이로 전시된 다양한 작품들과 바리톤, 소프라노 등 아름다운 선율의 군악 공연은 전시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제1전투비행단

‘23-2차 전투태세훈련

제1전투비행단은 10월 11일(수)부터 10월 13일(금) 까지 사흘간 비행단의 임무 수행 및 작전 지속 능력을 점검·보완하기 위한 ‘23-2차 전투태세 훈련’을 했다. 지휘소 연습, 대테러 종합훈련, 대량 전상자 의무 지원 훈련 등과 함께 야간 기지방호·재난통제 훈련 간 기본훈련 점검을 병행했다.



제3훈련비행단

‘23년 민·관·군 합동 유류유출 대응 방제훈련

제3훈련비행단은 10월 20일(금), 사천강 웅비2교 인근에서 ‘23년 민·관·군 합동 유류유출 대응 방제 훈련’을 시행했다. 이번 훈련은 유류 관리 요원들의 유류유출 상황 발생 시 대응절차 숙지와 방제물자 사용방법 등 세부 임무 절차 숙달을 위해 진행됐다.



제11전투비행단

제75주년 국군의 날 부대 표창 수상

제11전투비행단은 9월 26일(화), 서울공항에서 진행된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부대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았다. 1958년 8월 1일 창단한 이래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최강의 전투비행단’ 육성을 목표로 실전적 전투·훈련을 통한 최상의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박차를 가해 왔다.



제16전투비행단

항공기 Hydrazine 제독훈련

제16전투비행단은 10월 12일(목) 작전 수행 중인 전투기에서 비상동력 연료인 Hydrazine이 유출된 상황을 가정해 ‘항공기 Hydrazine 제독훈련’을 시행했다. 이번 훈련은 신속·정확·안전하게 유출원점 및 항공기 주변을 제독하고 조종사를 구출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진행됐다.



제18전투비행단

BTL 관사 건물화재 진압훈련

제18전투비행단은 10월 18일(수), BTL* 관사 어린이 집에서 건물화재 진압훈련을 시행했다. 이번 훈련은 소방요원들의 화재대응 임무 능력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요소를 차단하는 절차 숙달을 위해 진행됐다. 또한, 함께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대피요령, 화재신고 방법 등을 교육했다.



* BTL(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시설 임대료를 지급한다.

슬기로운 장병생활

오늘을 살자



장박원 前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고려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 1992년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90기로 임관해 공군사관학교에서 3년간 영어 교관으로 근무했다. 1995년 매일경제신문에 입사해 산업부와 정치부, 국제부 기자, 중소기업부 부장을 거쳐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오늘’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알아?” 어느 날 선배 한 분이 뜬금없이 물었다. “오늘요?” 오늘은 오늘이지 ‘오늘’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본 적이 없어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오늘은 ‘오!’라는 감탄사와 ‘날 그래’라고 할 때 ‘항상’, ‘언제나’라는 뜻이지. ‘오!’ 하며 탄성이 나올 만큼 들뜬 기분을 날 가지고 사는 바로 여기 이 시간이 ‘오늘’이 가진 뜻이라는 이야기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영감이 떠올랐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오늘’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다. 당연한 진리인데도 평소에는 잊고 사는 명제다.

선배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오늘’이라는 말의 어원을 검색해 보니 ‘오다’라는 동사와 이날 저 날 할 때 ‘날’이 합쳐진 단어다. 옛말은 ‘온알’이고 ‘오날’을 거쳐 ‘오늘’이 됐다. 오늘은 ‘이미 온 날’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날’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 ‘날’은 해가 가장 밝은 시기를 의미한다. 한자로는 ‘일(日)’이다.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배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듯이 오늘은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 가장 밝은 조명을 비춘다. 이런 점에서 선배의 오늘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오!”라는 감탄사가 나올 만큼 빛나는 시간이 오늘의 진정한 의미기 때문이다.

1989년 개봉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명대사로 널리 알려진 ‘카르페 디엠(Carpe diem)’도 오늘을 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말이다. “현재를 잡아라”로 해석할 수 있는 카르페 디엠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처음 한 말이다. 앞뒤 문맥은 다음과 같다. “더 나은 일은, 미래가 어떠하든, 주어진 대로 겪어내는 것. (중략)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동안에도 인생의 시간은 우릴 시기하며 흐른다/현재를 잡아라. 미래에 대한 믿음은 최소한으로 해두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인데 많은 이들은 오늘을 살지 못한다. 과거의 일에 집착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정말 소중한 조명을 받아야 할 오늘을 잊게 만든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보여준 작가가 있다.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Antoine Marie Roger De Saint Exupery)다. 그는 『어린 왕자』에서 오늘을 살지 못하는 두 명의 어른을 등장시킨다. 네 번째 별에 사는 사업가와 열세 번째 별에서 만난 술꾼이다.

사업가는 책상에 앉아서 자신이 소유하게 된 별을 끊임없이 센다. 별을 세는 이유는 ‘미래’를 위해 별을 저축하기 위해서다. 쉽 없이 숫자를 되뇌고 있는 사업가에게 어린 왕자가 무엇을 세고 있는지 물었으나 너무 바쁘다며 대답해 줄 시간이 없다고 한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이렇게 이어진다.

“그렇게 많은 별로 뭘 하시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저 소유하는 거야.”

“그런데 별을 소유해서 뭘 하시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저 소유하는 거야.”

“그런데 별을 소유해서 뭘 하시려고요?”

“관리하지.”

“하지만 아저씨는 별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 맞아. 하지만 은행에 넣어 둘 수는 있어. 종이에 내 별이 몇 개인지 적어 서랍 속에 넣고 열쇠로 잠그는 거지.”

“그게 다예요?”

“응. 그걸로 충분해.”

사업가는 별을 세느라 오늘을 흘려보낸다. 귀중한 만남이나 경험이 주는 즐거움을 외면한다. 신경통에 걸릴 만큼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사업가에서 우리의 자화상이 보인다. 오늘 돈을 많이 벌어 앞으로 잘 살겠다며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이 별을 세고 그 숫자를 적어 서랍에 저축하는 사업가와 겹쳐진다.

술꾼은 사업가와 반대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른을 상징한다. 그는 침울한 표정으로 술을 마시고 있다. 그런 술꾼에게 어린 왕자가 묻는다.

“술은 왜 마셔요?”

“잊어버리려고 마신다.”

“무엇을 잊어버려요?”

“부끄러운 걸 잊어버리려고 그러지.”

“부끄러운 것이 뭔데요?”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럽지.”

술꾼은 오늘의 술맛을 느끼지 못한다. 술을 마셨다는 과거의 부끄러움이 술을 마시는 이유다.

과거와 미래에 과도하게 매몰되면 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 우울증 환자는 과거의 잘못을 자꾸 되새기며 극단적인 비관에 빠진다. 이와 반대로 미래에 대한 불만이 너무 크면 공황장애에 걸리기 쉽다. 그렇다면 과거나 미래가 아닌 오늘을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어린 왕자는 사업가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꽃을 한 송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물을 주죠. 화산도 세 개나 가지고 있는데 매주 분화구를 청소해요. 내가 그들을 소유한다는 건 내 꽃이나 내 화산에 유익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는 별들에 그다지 유익해 보이지 않아요.”

진정으로 오늘을 사는 게 무엇인지 암시하는 말이다. 매일 물을 주고 매주 화산 청소를 하는 일은 하찮아 보이지만 세상은 이런 소소한 일로 돌아간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한 달, 한 권

화장실엔 시집을 몇 권 가져다 놓자



편성준 작가

20여 년간 카피라이터로 근무했다. 퇴직 후 『부부가 둘 다 놀고 있습니다』, 『여보, 나 제주에서 한 달만 살다 올게』, 『살짝 웃기는 글이 잘 쓴 글입니다』 등을 썼다. 작은 한옥을 고쳐 '성북동소행성'이라 이름 붙이고 '독하다토요일', '소금책' 등 돈이 되지 않는 모임을 계속 하고 있다. 유머와 위트 있는 글을 지향하며 출판기획자인 아내, 말 많은 고양이 순자와 산다.

오늘은 시집 두 권을 소개할까 합니다. 제게도 시는 참 어려운 분야라 누군가 '시'가 뭐냐 물으면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시인은 몇 명 있습니다. 그중 박연준 시인과 박준 시인의 시집을 다시 들춰보고 싶어졌습니다. 박연준 시인의 『아버지는 나를 처제, 하고 불렀다』 시집은 제목만 읽었는데 “아!” 하고 탄성을 뿜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목의 비밀은 「뱀이 된 아버지」를 읽으면 쉽게 풀립니다. ‘아버지를 병원에 걸어두고 나왔다’로 시작하는 이 시는 아버지에게 대한 시인의 사랑과 연민, 애증 등이 뱀을 통해 어렵פות이 드러납니다. 아마도 시인의 아버지가 입원했을 때 이미 치매나 섬망* 증세가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처제라 부르는 모습을 보며 가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본인은 모르고 타인은 아는 그 아이러니한 슬픔과 존재의 고독은 독자인 제게도 연민과 안타까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다음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다니까 단박에 인간 실존의 문제로까지 확장됩니다. 문학의 힘은 이렇게 아닐까요. 인생을 글 몇 줄에 담아내는가 하면 작은 소재로도 세상 만물의 이치를 꿰뚫어 설명하는 능력 말입니다. 이 시집의 다른 시 「서른」엔 간장을 중지에 따르다 튼 한 방울의 그 까만 점 속에서 자신의 서른이 피어나는 것을 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들에겐 얼룩으로 보일 간장 한 방울이 시인의 눈엔 이십 대를 끝내고 새로운 십 년으로 들어서는 거대한 마침표로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고 나니 시인이란 직업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걸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 섬망(譫妄·delirium): 신체 질환이나 약물, 술 등으로 인해 뇌의 전반적인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증후군. 주의력 저하와 의식 수준, 인지 기능 저하를 특징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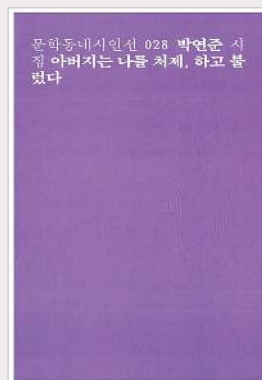
혹시 플라톤이 ‘시인 추방론’을 펼쳤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플라톤의 저서 『국가』엔 시인들은 열등하면서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는 자들이므로 추방해야 한다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성(理性)을 지상 최고의 선(善), 이데아로 여기던 플라톤에겐 매사 의심하고 뭐든 뼈다귀하게 보는 시인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하지만 어느 시대애나 시인은 존재했으며, 그들은 깡마른 몸매에 가난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형형한 눈빛을 감추지 못하는 선지자(先知者)였습니다. 그래서 셰리는 시인을 ‘인정받지 못한 입법자’라고 불렀고, T.S 엘리엇은 ‘시인이 없으면 인류가 인류이기를 포기하게 된다. 시인이 죽으면 신을 향했던 열망과 감정이 죽는다.’라고 한 거겠죠. 심지어 보르헤스는 ‘신이면서 동시에 비천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박준 시인의 시집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는 충격이었습니다. 이 시집엔 어떤 일인지 자살하려고 손목을 깊게 그었던 남자와 시인이 마주 앉아 통닭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먹고 마시기만 하던 시인이 던진 첫 질문은 왜 하필 봄에 죽으려고 했냐는 것입니다. 참 사교성 없고 황당한 질문이죠. 그런데 남자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그럼 겨울에 죽을 것이냐”라며 웃거든요. 그리고 시인은 ‘마음만으로는 될 수도 없고 내 마음 같지도 않은 일이 봄에는 널리 있었다’라고 끝맺습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아니,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이렇게 처연한 계절로 만들어버려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박준 시인은 알고 보면 따뜻한 사람입니다. 과묵한 아버지와의 대화를 다룬 시 「생활과 예보」는 온종일 마루에 앉아 라디오를 듣던 아버지가 일기예보를 듣곤 “비 온다니 꽃 지겠다”라고 처음으로 한마디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 말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말을 곱게 간직하다가 시로 써서 의미를 만들어낸 감성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박준 시인은 데뷔작인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가 베스트셀러가 됨으로써 화제 됐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감기약처럼 여기고 며칠을 먹었다는 고백에 감복한 어느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 이 시집을 극찬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감성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자나 소설가처럼 취재를 많이 다닌다는군요. 낯선 동네에 가서 사람들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기도 하고, 심지어 광부에 대해 써보고 싶어 폐광이 있는 고장에 가서 병원 대기실 벤치에 앉아 있다 오기도 했습니다.

예전엔 종이신문이라도 읽었는데 이제 화장실에서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저는 그게 싫어서 저의 집 화장실에 시집을 몇 권 가져다 놓았습니다. 화장실에서는 긴 소설보다 짧은 시가 어울리니까요. 칸칸이 시집이 한 권씩 놓여 있는 공군 화장실을 상상해 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시인들이 더 기운 내서 시를 쓰겠죠. 어쩌면 고마운 마음에 공군을 찬양하는 시를 한 편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시인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존재들이니까요. ■



『아버지는 나를 처제 하고 불렀다』
박준 시인 지음 | 문학동네 펴냄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 지음 | 문학동네 펴냄

영화로운 나날

「1947 보스톤」 그들이 달려야만 했던 이유



김인혁 에디터

콘텐츠 에디터. 구독 중인 OTT 서비스만 5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말보다는 글로 쓰는 재주가 더 뛰어나다는 걸 알게 된 후 열심히 글을 쓰고 있다. 주말에는 『주간영화』와 『오늘은 쉽니다.』라는 뉴스레터를 마감하며 보내는 편이다.

정(情), 가족, 그리고 애국.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누구보다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감독, 강제규가 돌아왔다. 무려 10년 만에 돌아온 강제규의 시간은 1947년, 해방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던 혼란과 갈등의 시기로 향한다. 영화 「1947 보스톤」은 이 불안정한 시대를, 은퇴한 마라토너 손기정(하정우)이라는 민족의 영웅과 서운복(임시완)이라는 떠오르는 루키(rookie)의 시선을 통해 조명함으로써 우리가 잊고 지냈던 그 날의 시간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 보게 만든다.

영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한 작품에 다양한 장르가 결합했다는 점이다. 마라톤이란 소재를 다루는 스포츠 영화이면서 손기정과 서운복 사이의 갈등과 우정을 다루는 버디영화(Buddy film)¹⁾고, 동시에 시대극으로서 애국 영화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장르가 뒤섞인 영화가 어떻게 균형감을 유지하는지 지켜보는 것 또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관람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마라톤을 향한 뜨거움과 남모를 상처를 숨기고 사는 올드스쿨(Old School)²⁾과 아직 마음보다 몸이 앞서는 당돌한 뉴스쿨(New School), 어쩌면 기존의 버디물에서 익숙하게 봐온 조합이지만, 강제규 감독은 이 서사에 신선함을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다.

1) 버디영화(Buddy film): 주로 동성인 두 명의 주인공들이 패를 이뤄 활약하는 영화. 주로 두 사람의 우정이 서사의 중심이 된다.

2) 올드스쿨(Old School): '구식의', '전통적인' 뜻으로, 뉴스쿨(New School)과 반대된다. 전통적 사고를 선호하거나 보수적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특히 ‘우리가 달려야 하는 이유’를 두고 애국이라는 이상과 돈이라는 실리 사이에서 이 둘이 서로 갈등하는 모습이 그렇다. 나라를 잃은 채 다른 나라의 국기와 이름을 가지고 달려야만 했던 기정과 당장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달리를 택한 윤복. 각각 해방전의 세대와 해방 후의 세대를 상징하는 기정과 윤복이 서로 다른 방향성을 두고 다투는 모습은 마치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하는 영화관 밖의 현실이 문득 떠오르기도 한다.

만나기만 하면 서로 부딪히고 으르렁대는 이들이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은 절대 순탄치 않다. 이들은 권력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지원금을 구하고, 자신들이 달려야만 하는 이유로 세상을 설득하기 위해 울분을 토하기도 한다.

그렇게 기정과 윤복을 비롯한 영화 속 인물들은 상영 시간 내내 각자가 처한 허들을 뛰어넘으며, 결승선을 향해 설 틈 없이 묵묵히 질주한다. 그들의 땀방울은 되찾은 조국을 알리기 위한 투쟁이며, 나와 내 가족의 생계를 위한 생존이다. 세대와 가치관의 갈등을 딛고 마침내 완주하는 이들의 서사에는 다양한 갈등이 만연한 우리의 현실을 풀어내갈 실마리가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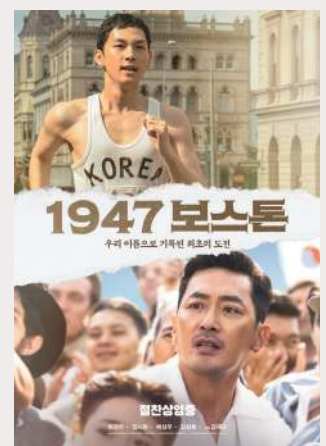
또한, 스포츠 영화의 주된 주제인 개인의 ‘시련과 성장’과 달리 「1947 보스턴」은 이들의 땀방울이 성공하기까지 시대적인 특성상 개인의 노력만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의 질주를 지원하고, 응원하고 또 지켜보며 열광하는 대중의 모습을 보여주며 기정과 윤복의 성공이 개인이 아닌 그 당시를 살아간 모든 이들의 열망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무엇보다 기나긴 달리를 시작하게 된 각자의 이유는 다르지만, 해방된 조국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교집합을 마침내 발견하고 결승점으로 달려가는

장면은 마치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의 배턴(baton)을 전하고자 하는 구세대의 진심 어린 마음과 손길처럼 느껴진다.

강제규 감독의 대표작 「태극기 휘날리며」와 마찬가지로, 가족애와 조국애라는 핵심가치는 이번 작품에도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1947 보스턴」은 ‘애국’이라는 익숙한 키워드로 귀결되는 마침표보다는, 인물 간의 갈등을 세밀하게 담아내고자 하는 시도를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대화와 소통의 틈을 남겨주는 십표에 가깝다.

이런 장르의 영화들이 엇비슷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무난하게 흘러가는 것과 대비되게 「1947 보스턴」은 영화 속 인물들이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부딪히며 시대와 갈등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줌으로써 익숙한 서사를 풍성하게 만들고 세대 간의 화합을 담아내고자 한 노력이 묻어난다.

그러나 극적인 연출을 위해 실제 역사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다소 몽툑한 연출에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그중에서도 윤복 역을 맡은 임시완의 존재감은 뽕족하게 빛이 난다. 답답하면서도 감정을 억누르는 그의 연기는 이들의 땀내 나는 땀방울을 이해할만한 근거가 돼주며, 이 모든 질주가 있어야만 했던 이유를 완성한다. 



시와 비행하다

하늘과 신비



강혜빈 작가

뉴노멀이 되고 싶은 양손잡이. 시를 쓰고 씹습니다. 2016년 <문학과 사회> 신인문학상 시 부문으로 등단했으며, 사진가 '파란피'로 활동 중입니다. 문예창작과 불문학을 공부하고, 다수의 문예지 및 잡지에 시와 에세이, 사진을 실었습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커다란 구름을 만들듯이, 희미한 빛들이 모여 어두운 귀퉁이를 밝게 비추듯이, 무지개가 나타날 때를 기다리며 몸을 숨기고 있듯이, 세상에 없던 빛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작노트]

가을과 공군. 두 키워드를 나란히 두고 새로운 시를 썼다. 순천만 습지에서 보았던 가을의 갈대밭과 새떼들. 날개를 가진 동물들. 보라매와 두루미. 시에 등장하는 '하늘'은 우리가 올려다보는 무한대의 넓은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이름처럼 보이기도, 공군의 마스코트인 '하늘이'를 떠올리게도 한다. 중의적 의미로서 자리하는 하늘은 그 자체로 비어있는 가능성이다.

공군의 상징인 '보라매'는 난 지 1년이 안 된 매를 일컫는다. 참매는 항상 혼자 또는 암수 한 쌍으로 발견된다. 성조는 과시적인 비행으로 텃세권을 지킨다. 둥지와 번식, 먹이터에 대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텃세권 가장자리에서 맹렬한 방어행동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개활지에서의 쏜살같은 돌격전을 주특기로 하여 숲 속에서의 사냥은 서투른 송골매가 완전히 귀족적인 이미지였던 것에 비해, 참매는 약간 생계형 사냥매에 가깝다. 일본 전통 매사냥에서는 참매를 두루미를 사냥하는 데 썼다고 한다.

보라매에 대한 특징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 날개를 가지고 하늘에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공군의 이미지가 겹쳐보였다. 특수한 위치에 놓인 공군 장병들의 젊음과 지켜야 하는 사랑. 두려움과 지남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차고 날아오르는 용기를. '하늘과 신비'라는 연인의 이미지로 시속에 담고자 했다. 하늘이 끝없이 높아지는 가을의 충만함, 그리고 마음에 스며드는 쓸쓸함을 완전히 느끼기를 바라며. 차가운 상공을 가을 채비를 마친다.

하늘은 신비의 손을 잡고 걷는다

푸드덕, 날아가는 저
두려움 때문에
둘은 여기까지 왔다

아무도 찾지 않는 갈대밭에는
갈대와 바람만 있고

손각지를 꼭 끼면
하나가 된 것 같아

때마침
갈대가 눕는다

보라매 떼가
시옷을 그리며 날아간다

스스스
스스스

일순간
하늘이 온통 검은 빛으로 가득

허공을 가로지르는
하얀 털실
화살촉의 차가운……

항공기가 굉음을 내며
뒤따른다

하늘은 신비의 빈집
투명한 무덤

스스스
스스스

바람이라 기억될 만 한
바람이 불고

갈대가 또
눕는다

해바라기 얼굴 속에 들어온 것처럼
끝없고 무서워

하늘은 신비를 꼭 끌어안고
신비는 하늘에게 몸을 기대고

둘은 우거진 갈대밭 안으로
움푹 꺼진다

기어서기어서 오솔길을 통과하면
두루미에 대한 옛날이야기가 떠오르고
따가운 빛이 몸을 훑고 지나간다

갈대란 깊은 애정을 의미하고
하늘과 신비는 그걸 모른다

서로 마주보며
이상하고 아름다운 춤을 추는 새

둘이서 즐거울 적에
가을이 다 왔다간 새

한 번 짹짹하기로 약속하면
평생을 함께 지내는 새

그런 새는 여기 있지만
하늘과 신비는 그걸 모른다

스스스
스스스

신비는 습지를 좋아해
물로 둘러싸인 곳에 동지를 만들고
하늘은 곁에 누워
두루미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두움
넓음
가득함
차가움
높음
날카로움
깊
그리고……

항공기는 보라매 뒤를
보라매는 두루미 뒤를
두루미는 하늘과 신비를
쫓고
쫓는데

너무 어린 보라매는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 난다

하늘은 신비의 두려움을 안다
함께여서 잠시 나아진다는 것도

바람이 불고
갈대가 일어선다

가능한 풍경이 돌아온다 

생각하는 그림

상무정신으로 지켜낸 한민족의 역사

상무(尙武)정신은 넓은 의미에서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취적인 호국정신을 의미합니다.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은 상무정신으로 수많은 외침과 국난을 극복하고 국가를 지탱해왔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고구려의 광개토태왕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고구려를 동아시아 최강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정복 활동을 통해 고구려 영토를 크게 확장했던 광개토태왕은 백성이 잘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토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구려가 활발한 정복사업을 이룩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상무정신에 있었고, 상무정신은 한민족이 국난과 시련을 극복하게 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이후 한반도 내에서 최초의 통일된 단일국가를 이룩한 신라의 근간엔 화랑정신이 있었습니다. 화랑정신은 화랑도에서 화랑과 낭도*들이 지켜야 할 이념이자 계율인 다섯 가지 정신으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친구를 믿음으로 사귀고, 함부로 죽이는 것을 삼가며, 싸움에 임할 때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세속오계(世俗五戒)로 대표되는 교리를 토대로 신라의 화랑은 몸과 마음을 닦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 낭도: 신라의 화랑 제도에서 우두머리격인 화랑을 보좌하고 따르는 청소년 집단으로, 평민이나 하급 귀족의 자제로 구성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무정신은 고려와 조선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고려의 지휘관 강감찬은 거란의 침입을 진취적인 호국정신과 뛰어난 지략으로 막아냈습니다. 강감찬은 거란군이 강을 건너자, 소가죽으로 막아 두었던 냇물을 일시에 내려보내 거란군을 크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살아남지 않았던 거란군은 귀주성에서 완전히 궤멸당하면서, 훗날 3대 대첩 중 하나인 귀주대첩으로 기록됐습니다. 조선의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초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해상에서의 연이은 승리로 왜군을 격퇴하며 적의 진군을 막아냈습니다. 이후 왜군의 모략으로 파직됐던 이순신 장군은 다시 수군을 지휘해 명량해전과 같은 전설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관료들과 백성들의 상무정신을 바탕으로 조선은 위기를 극복하고 오랫동안 역사를 일궈나갔습니다.



공군인 여러분!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던 시기마다 강한 힘과 진취적인 기상으로 외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터전을 지키고자 했던 상무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 흐르는 교훈과 상무정신의 가치를 기억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각자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합시다! 

※ 국방부 주간정신전력교육 기본과제 교안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공군인의 편지

작지만 큰 나의 전우에게

병장 황원진

월간 『공군』 표지를 책임졌던 공군지편집디자인병,
전역을 앞두고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안녕!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네. 너희는 따뜻하게 잘 입고 다녀? 나는 날씨 덕분에 내 전역이 다가온다는 게 실감나기 시작했어. 내가 입영했던 훈련소의 계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작년 2월에 훈련소에 들어가 추위와 코로나19에 덜덜 떨었었지. 힘든 일도 많았고 서러운 일도 많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루씩 보내다 정신 차려 보니 자대에 와있더라. 새로운 환경에서 진짜 군 생활 시작이라는 긴장감과 너희를 처음 만났던 설렘이 다시금 새록새록 떠오르네.

나의 본격적인 군 생활 시작을 너희의 시작으로 함께하고, 내 군 생활의 대부분을 너희와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 너희가 없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된다. 천천히 되돌아보니 재밌었던 순간도, 힘들고 슬펐던 순간들도 모두 추억이 되어있는 것 같아. 음, 재밌었지. 함께 산책도 하고 달을 보며 소원도 빌고 추석에 윷놀이도 하면서 말이야. 너희도 재밌었길 바라.

하늘아, 마홀아, 보람아, 혹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내가 새로운 환경에 정신 못 차리고 있던 이병 시절, 공군지편집디자인병으로서 가장 먼저 받은 업무가 하늘이프렌즈 런칭 포스터였지. 포스터를 다 만들고 나서도 너희가 너무 좋아서 살아 움직이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인지 자연스레 하늘이프렌즈의 런칭 영상을 만들 기회도 생겼었네. 그 이후엔 내가 너무 바빠서 간간이 너희를 볼 수 있었는데, 올해에 들어선 정말 하루도 빠짐 없이 너희를 본 것 같아. 추운 겨울에 귀여운 눈사람을 만들고, 따뜻한 봄엔 화려한 벚꽃도 봤지. 여름엔 시원한

실내에서 취미 생활도 하고, 선선한 가을엔 화창한 하늘 아래 단풍놀이도 갔어. 아, 그 사이에 너희의 첫 생일을 맞아 가족사진을 찍어줬던 것도 기억나네! 최근엔 같이 유튜브도 찍고 말이야.

이제부터 비록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추억은 평생 안고 살 것 같아. 군대 기억은 평생 간다잖아. 이제부터 으쌰으쌰 해서 어찌저찌 잘 살아 나가 보자! 내가 너희의 런칭 포스터에 썼던 문구가 떠오르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같이 재밌는 이야기를 써 내려가서 행복했어. 하늘이프렌즈, 너희 앞에 펼쳐질 이야기를 사회에서도 계속 기대할게.

필승! 하늘이 소위님. 이제 진급 좀 하십시오.

필승! 마홀이 하사님. 제가 가장 애정했지 말입니다.

그래, 보람이 상병. 너는.. 고생해라.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읽는 모든 독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필승! 



하늘이프렌즈 런칭 포스터

책 읽는 공군

그런데도 살아야 할 이유

병장 박세진

혈관 속엔 잉크가 흐른다.
잉태한 글이 훗날 나는 그날까지, 심장은 멎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되는 일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과 함께 회의가 들 때 말이지요. 그런데 문득 ‘나 왜 살지?’란 생각이 머릿속을 강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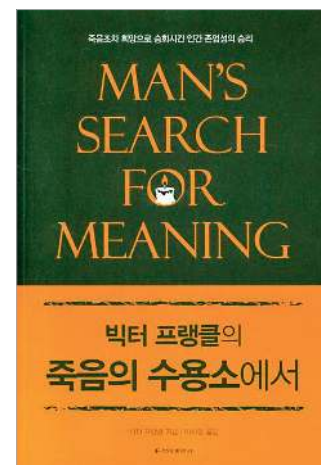
삶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산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결정이 좋은 결정인지, 나쁜 결정인지도 결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죠. 곧 사라질 말,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우리의 존재 이유를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오랜 질문의 굴레에 대한 단서를 『죽음의 수용소에서』 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자인 빅터 프랭클(Viktor Emil Frankl)은 빈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는 나치에 의해 끌려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선 여럿을 만납니다. 기약 없는 생지옥에서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런데도 살아야 할 이유, 버텨야 할 명분을 일깨워 줍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로고테라피’^{*} 이론을 세워 정신치료의 한 방법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인생의 파도에 휘청일 때면 우리는 보통 삶으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하기 쉽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럴 때일수록 ‘삶에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닌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삶의 의미에 관해 질문하는 대신 삶으로부터 질문받는 우리 자신에 대해 매일, 매시간 생각하라고 하죠. 누군가에게 ‘왜 죽지 않아야 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선 ‘왜 살아야 하는가?’를 먼저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할까요? 빅터 프랭클

은 각자의 개별성을 강조합니다. 각각의 개인은 독자성·유일성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대체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생존에 관한 책임이 아주 중요한 의미로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왜 살아야 하는가?’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동시에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죠.

저도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스스로에 대한 불신이 클 때 읽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아직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수 없지만, 내 유일성을 바탕으로 한 굳센 이정표가 하나 생겼음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의 나침반을 잃을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이 책을 읽는 모두가 짙은 안갯속에서도 자신만의 이정표를 따라갈 수 있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 지음 | 정이출판사 펴냄

* 로고테라피(logotherapy): 의미치료. 삶의 목적을 중시하며, 인생에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으로, 의미상실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미래 지향적 해결방식이다.

토닥토닥 가을에 띄우는 쇼팽

나의 첫 번째 직업은 입시 선생님이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초면이라 어색한 봄·여름을 지나, 서로의 농담에 익숙해질 가을 무렵에 무조건 거치는 관문이 하나 있다. “선생님!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다. 물론 매년 같은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나도 점점 노련해져 연애사를 10분 짜리로 대충 각색해 빠르게 떠든 뒤 아무 일 없었던 듯 수업을 다시 이어가는 꽤 멋진 어른으로 성장했더랬다.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누군가요?” 그 언젠가의 쇼팽(Fryderyk Franciszek Chopin)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9년을 사랑했던 연인을 말했다. 바로 프랑스의 여류 작가, 조르주 상드(George Sand)다.



쇼팽의 사진(왼쪽)과 조르주 상드의 초상화(오른쪽)

상드는 사교계의 암전한 여성들과는 달리 남장을 즐기며, 시가를 물고 다니는 꽤 거친 성향의 사람이었다. 반면 쇼팽은 굉장히 내향적인 것으로 유명했다. 상드는 쇼팽에게 한눈에 반했지만, 쇼팽은 그녀를 오랫동안 부담스러워했다고 한다. 하지만 상드의 적극적인 애정표현과 쇼팽의 음악에 보내는 진지한 찬사에 쇼팽의 마음이 점점 열렸고, 이내 둘은 깊은 사이가 된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쇼팽이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

쇼팽은 사회와 격리돼 환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 상드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외출하는 일이 많아졌다. 어느 날, 상드가 평소 집을 나설 때와 달리 갑자기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쳤다. 겁이 많은 쇼팽은 연인의 안부를 걱정하다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늦지?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원래 불안은 가만히 놔둬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마련이지 않은가. 쇼팽은 두려운 마음을 달래고자 오선지 앞에 앉았고, 이때 쓴 곡이 바로 〈빗방울 전주곡〉이다.

사랑하는 여인이 위험에 빠졌을지도 모르는데, 몸이 약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자의 기분은 도대체 어땠을까. 그 래서인지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은 그 특유의 서정적인 선율과는 달리 처절하고 비참한 그의 울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다. ‘괜찮을 거야. 빗방울이잖아.’라고 말하는 듯한 다정한 멜로디 뒤에는 조용히 울고 있는 한 여린 남자가 있었다.

예고 없이 쌀쌀한 날씨로 들이닥친 가을만 되면, 나는 문득 이 곡이 떠오른다. 가을이 사랑을 곱씹기 좋은 계절이라 그런 걸까. 지난 사랑을 되짚는 것만큼 무용(無用)한 일은 없다고 하지만, 오늘같이 시린 날에는 나의 일부였던 어떤 사랑의 모양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싶다. 



송사비 뮤직테이너·작가

연세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했으며, 클래식 음악을 재미있게 소개하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12만 유튜버가 됐다. 『송사비의 클래식 음악야화』, 『클래식 사용 설명서』를 출간했다. EBS 〈클래스@ 2021: 클래식 뮤직드라마〉, FLO 〈일상의 클래식〉 등을 제작·진행하며, 일반인과 클래식 사이를 이어주는 주선자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음의 소리

강현숙

seegiep**@naver.com

월간 『공군』 10월호 <생각하는 그림> ‘영공을 수호하는 최선의 자세, 유비무환(有備無患)’을 읽던 중 눈에 띈 구절입니다. 앞으로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우리 공군이 더욱 강하고, 용맹스러워져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을 굳게 지켜주시길 응원합니다!

박준석

jsp59**@naver.com

‘상처의 천적, 상상력’을 읽으며 힘을 얻었어요. 서은 작가처럼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도 또 고통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야 함을 공감하며 글을 읽었습니다. <토닥토닥> 고마워요! 덕분에 예닐곱 살 두 아들이 공군 장교가 돼 하늘 위로 비상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송태훈

radbo**@naver.com

아홉 살 때 처음 에어쇼를 보고 공군을 좋아하게 돼 공군인의 꿈을 키우다가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공군 비행단에서 근무하며, 전투기 엔진 소리를 들으니 앞으로의 행복한 군 생활이 기대됩니다. 공군인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필승!

AF

대한민국 영공방위에 빈틈없도록 불철주야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 장병들을 앞으로도 응원해주세요~ 강한 공군, 좋은 공군의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AF

‘반드시 이겨낼 거라는, 지금의 고통이 나를 지금보다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기분 좋은 상상력’으로 공군인분들이 상처를 극복해내시길 바랍니다.

AF

공군인의 꿈을 이루게 된 송태훈 일병의 건강하고, 행복한 군 생활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는 월간 『공군』 장병 참여코너에도 자주 공모해주세요!

접수
방법
📁

마음의 소리

월간 『공군』 홈페이지(afzine.co.kr) <독자의견>에 업로드
매월 15일까지 / 250자 내외 /
기념품 수령을 위한 주소·연락처 기재 필수

공군인의 편지

공백포함 1,250자 내외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후 E-mail 전송
인트라넷: ekgald123@af.mil / 인터넷: afzine@korea.kr



구독문의 QR코드



독자의견 QR코드

545

확고한 영공방위태세 더욱 높이 비상하다

